

일회용품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탄소중립 함께 해요

'지구의 날' 맞아 광주·전남 기관·단체 '기후변화 주간' 행사 다채 탄소 다이어트 챌린지·땀방이 서식지 정화 활동·인문학 특강 등

제55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기후변화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2025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후변화주간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슬로건은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22일 오후 8시에는 광주시청과 5개 자치구청을 포함한 광주지역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100여 곳이 전국단위로 열리는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10분간 진행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9일 광주시청앞에서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으며, 이밖에 서구청에서는 '찾아가는 갑탄서구환경학교', 북구청에서 '땀방메습지 어린이 탐사르습지탐험대' 등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도시공사도 공사 내외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다큐멘터리 상영회, 폐전자제품 자원순

환 캠페인,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을 독려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SNS 인증형 실천 프로젝트인 '탄소다이어트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채식 실천 등의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챌린지는 4월 말까지 이어지며 참여자 수에 따라 탄소 감축량을 산출할 계획이다.

생태보전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도 진행된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시 산정동 북향 땀방이 대체 서식지에서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시민 등 20여명과 함께 정화활동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두 개 조로 나뉘어 서식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지정 지점에 집하한다. 땀방이 보호와 생애주기 정보가 담긴 안내 팸플 2개도 새롭게 설치된다. 퍼포먼스 활동으로는 땀방이 머리띠와 단체 티셔츠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릴스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서식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땀방이의 주요 산란지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조성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 8개 환경교육기관(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후에너지진흥원 등)과 함께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학생·시민 대상 교육자료 배포와 더불어 참여 기관이 주관하는 방문형 수업, 워크숍, 지역 환경조사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탄소중립 체험교육은 오는 25일까지 광주 남구 물사랑배움터에서 운영된다. 기후위기 원인과 실천 방법을 주제로 한 연극·모형놀이, 미니 소등체험 등이 마련됐다. 영산강청은 기관 내에서는 도보·자전거 출퇴근 장려, 채식식단 운영,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병행하며 행정기관의 실천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에서는 '비건으로 지키는 지구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정된 광주지역 비건 식당에서 식사한 뒤 SNS에 인증하면 책꽂이, 비건식당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독립서점 '책과생활', 식당 '프로젝트광' 등 지역 로컬 브랜드가 협력하고 있으며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또 기후변화주간 연계행사로도 '쓰레기 없는 소풍&캠핑', '농(農)인문학 시민특강', '종이팩을 구하는 우리학교 프로젝트', '제사용 장터 보자기장', '종이팩 수거체계 개선 간담회', '지구의 날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이 마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는 이 같은 슬로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 최근 무등산 일원에서 실시한 환경정화 활동.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제공)

건을 내걸고 오는 25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에 동참한다. 역대 전광판에 기후변화 메시지를 송출해 승객들에게 탄소중립 가치를 전달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도 최근 무등산에서 환경정화 활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 임직원 30명이 참여해 중심사 지구관리소부터 새인봉, 중머리재 등 무등산 국립공원 내 쓰레기 취약지를 점검하고 환경 보호에 동

참했다.

한편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민간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정부 주관으로 기후변화주간이 운영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삶을 위한 도시@광주' 첫 번째 이야기

한걸음가게, 오늘 '소비' 주제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한걸음가게(대표 김지현)가 23일 '삶을 위한 도시@광주', 첫 번째 이야기를 선보인다.

한걸음가게는 4월부터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 '삶을 위한' 도시를 돌아본다. 이날 행사는 '소비'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린다.

1차 포럼에서는 소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이소연, 예스, 서수민, 박은옥 총 4명이 한걸음가게를 찾는다. 앞서 손님들은 스스로를 '착취없는 멋부림'을 생각하는 사람('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자 이소연씨), 18

년째 활동하며 여전히 재사용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아름다운 가게 매니저 '예스'씨), 대화로 지속가능한 삶을 잇는 사람(파베기대화클럽을 운영하는 도시철학디자이너 박은옥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로운 빵집 운영을 공리하는 사람(빵과장미의 빵쟁이 서수민씨)이라 소개했다.

이날 손님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지,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논의하고, 특히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소비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연결이 필요인지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걸음가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방림2동 장애인 가정 올해 첫 대상

광주 남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가정을 시작으로 올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방림2동에 거주 중인 뇌병변 장애인 부자 가정을 올해 첫 대상 가구로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해당 가정은 주거공간 전반에 걸쳐 누수와 곰팡이 피해가 심해 방수 작업과 벽지·장판 교체 등 실내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사는 약 일

주일간 진행되며, 대상 가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새 보급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남구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226번째 사례다. 남구는 올해 말까지 총 23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중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이 우선 선정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광산구, 나무 254만 그루 심는다...숲 조성·녹지 확충 속도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 내년까지 200만 그루 식재 목표

광주시 광산구가 탄소중립 실현 나무 254만 그루를 심는다.

광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200만 그루 상생·희망 나무 심기' 사업의 목표를 높여 숲 조성과 녹지 확충에 속도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상생·희망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애초 ▲시민 참여 나무 심기 ▲생활권 도시 숲 확충 ▲가로공간 정원 조성 ▲민간 주도 나무 심기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광산구는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 달성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기념일 나무 심기 등 시민 참여, 민간 주도로 심은 나무만 54만 그루 이상이다.

올해도 지난 3월 침단2동 생태광장에서 지역 주민, 어린이 등 200여 명이 17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지난 4월 3일 '시민 참여로 피어난 꽃! 더 나은 민생의 길!'을 주제로 열린 제80회 식목일 행사에선 500여 명 시민이 은복서, 향나무, 꽃



잔디 등 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유휴부지 활용, 녹지 조성 등과 연계한 나무 심기, 숲 만들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목표치의 68%인 136만 그루의 나무 식재가 완료됐다.

광산구는 광산구보건소 '산림 복지 나눔 숲', 광주공항공인 '생활밀착형 숲', 침단둘레길 정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54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고, 2026년에는 64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

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만드는 가장 따뜻한 해법"이라며 "시민과 손잡고 푸름이 넘치는 탄소중립 도시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